

##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인클레이브 관광 연구

서지현

부경대학교

오인혜

전북대학교

서지현·오인혜(2022),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인클레이브 관광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3(1), 109-135.

**초록**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주된 경제 발전 동력 중 하나는 관광 산업이다. 관광 산업은 역사문 화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3-S로 상징되는 태양(sun), 해변의 모래사장(sand), 바다(sea)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하여 관광 산업이 발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3-S에 기반한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관광이 지역 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인클레이브 관광(enclave tourism)’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올인클루시브 관광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 지역(칸쿤)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요 관광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올인클루시브 관광은 관광 관련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 복합체 내에서 관광객이 관광 기간을 보내며, 모든 관광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하는 관광 형태이다. 이러한 관광 형태에서는 인클레이브 경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자본 축적을 위한 ‘탈영토화된 장소’로서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탈영토화된 장소는 주로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적 자본이 투자하고, 거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자원을 수출하는 자본 축적의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실제 지역 사회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한다. 카리브해 연안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러한 인클레이브 관광의 한 형태인 올인클루시브 관광이 지역 내 존재해온 노동, 젠더, 도시 구조, 환경 및 자원 이용과 관리와 같은 생태·사회적인 측면에서 존재해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업계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관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핵심어** 올인클루시브 관광, 인클레이브 관광, 카리브해 연안 지역, 칸쿤, 바바로-푼타 카나

## I. 들어가기

카리브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해안, 중앙아메리카의 동부 해안, 대안틸레스 제도(Greater Antilles)와 소안틸레스 제도(Lesser Antilles)로 둘러싸인 대서양의 내해이다(서지현, 2020a). 카리브해에는 무인도를 포함한 약 7,000여 개의 섬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화산섬이고, 주변에는 산호초가 발달해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의 영유지를 포함하여 15개의 도서 국가와 멕시코의 유카탄반도가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카리브해 지역의 주된 경제 발전 동력 중 하나는 관광 산업이다. 관광 산업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3-S로 상징되는 태양(sun), 해변의 모래사장(sand), 바다(sea)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하여 관광 산업이 발전했다. 세계 여행 관광 협회(the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카리브해 지역에서 관광 산업은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2%, 고용의 13.8%, 전체 자본 투자의 12.9%, 수출의 19.8%를 차지하며, 2017년 카리브해 지역을 찾은 국제 관광객 수가 3천 6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Goffi *et al.* 2020, 2).<sup>1)</sup> 멕시코 카리브 연안 지역의 경우, 2017년 기준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94만 명으로 전체 멕시코 입국자수의 3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며, 전체 70개 관광 지역 중 카리브 연안 지역의 칸쿤과 리비에라마야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SECTUR 2019; 2021).<sup>2)</sup>

특히 카리브해 도서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Charles 2013, 152). 이러한 측면에서

1) 카리브해 지역 관광기구(the Caribbean Tourism Organisation)의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른 국가별 관광 의존도는 자메이카 GDP의 27.4%, 세인트루시아 39%, 바베이도스 39.4%, 바하마 48.4%, 앤티가&바부다 77.4%를 차지할 만큼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Billy 2017).

2) 1위 관광구역은 멕시코시티(1,331,505명)이며, 이어서 칸쿤(8,656,570명), 아카폴코(6,743,699명), 리비에라 마야(4,872,819명) 순이다(SECTUR 2019).

관광 산업은 규모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국가에서 지역의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을 통한 빈곤 감축에도 적합한 산업이라고 평가받아왔다(Oviedo-García *et al.* 2019, 995). 1960년대 중반 이후 3-S에 기반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관광 산업은 2000년대 말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침체기를 제외하면 지난 40여 년간 카리브해 도서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의 무분별한 발전은 산업의 중추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광 산업 자체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Charles 2013, 151). 또한 다국적 자본의 투자가 지배적인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관광 모델은 “지역 사회” 발전에도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은 숙박(호텔 혹은 리조트), 식사, 음료, 그 밖의 여가 활동을 일괄 포괄하는 형태의 관광 모델을 일컫는다(Cabezas 2004, 997; López-Guzmán *et al.* 2016, 12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카리브해 지역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알려진 관광 산업이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카리브해 연안의 중요 관광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올인클루시브 관광이 지역 발전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카리브해라는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가 관광 산업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클레이브 관광의 형태로 발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 10대 관광국의 하나로,<sup>3)</sup> 방대한 영토에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 산업은 1993년 이래로 국내총생산의 8% 내외를 지속해서 차지해오고 있으며,<sup>4)</sup> 고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오며, 2017년 기준 전체 고용의

3) 2019년 관광객 수 기준으로 세계 7위를 차지했다(UNWTO 2020).

4) 2019년 기준 8.7%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COVID-19의 여파로 6.7%로 감소하였다(SECTUR 2021)

5.9%를 차지했다(SECTUR 2019). 멕시코 내 주요 올인클루시브 관광유형 발전 지역으로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지를 꼽을 수 있다.

멕시코와 유사하게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안틸레스 제도에 있는 이스파놀라(Hispanola)섬에 위치한 국가로 카리브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국가로 성장했다. 2017년 기준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7.2%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용의 15.9%, 전체 수출의 38.7%를 차지했다(Goffi *et al.* 2020, 4). 또한 카리브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23.8%(618만 8천명 이상)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국제 관광객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카리브해 국가가 되었다(íbid.). 도미니카 공화국 역시 주변 카리브해 도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S를 중심으로 하는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관광지가 발달했다. 카리브해의 따뜻한 기후, 에메랄드빛 바다, 태양에 반짝이는 백사장, 모든 것이 갖춰진 고급 리조트 호텔은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미와 유럽의 일상에 지친 이들이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기에 완벽한 파라다이스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관광 산업, 특히 인클레이브 관광이 미치는 영향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겐 일상의 무게를 잠시 잠깐 털어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제공해주지만,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과 주변 생태계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관광 산업의 발전은 기존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던 경제사회적 빈곤과 계급, 젠더, 인종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플랜테이션 경제”의 재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 산업 중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보여주는 “인클레이브 관광” 개념을 통해 관광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카리브해 연안 지역 연구와 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닦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특징인 “인클레이브 관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기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해 연안지역에서 올인클루시브 관광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서 인클레이브 관광 형태의 올인클루시브 관광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함의를 정리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 II.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특징: 인클레이브 관광(enclave tourism)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관광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주제나 지역적인 맥락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쿠바의 관광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곽재성 2000; 장동석·이승훈 2017; 주종택 2014; 2020; 2021). 주제별로 보면, 주로 문화 자원 관광과 관련된 연구(손수진 2016; 주종택 2014; 2020; 2021)가 지배적이며, 관광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김정원 2019), 생태관광과 관련된 연구(김희순 2011; 서지현 2020b)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관광 산업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음에도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연구의 주요 연구 관심인 발전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관광에 관한 연구 범주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발전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의 주된 형태인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인클루시브 관광은 숙박(호텔 혹은 리조트), 식사, 음료, 그 밖의 여가 활동을 일괄 포괄하는 형태의 관광 모델을 일컫는다(Cabezas 2004, 997; López-Guzmán *et al.* 2016, 128). 올인클루시브 관광은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 마케팅, 전문적 네트워크, 자본 투자 등을 통해 식품, 음료, 기자재 등의 물품은 대부분 수입하고, 관광객과 지역 공동체 간

의 교류가 적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지적된다(Oviedo-García *et al.* 2019, 105; Fawcett 2016, 19; Duffy *et al.* 2015, 2; Pantojas 2006, 91). 이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투자 형태는 특히 국가의 규제 기반이 허약한 가운데, 국제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하며, 지역 내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발전 모델로 비판을 받는다. 본 장에서는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인클레이브 관광(enclave tourism)”의 개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인클레이브(enclave)란 주로 주변부 국가의 수출 경제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주로 외국 자본이 투자, 개발하는 “탈영토화된 장소(deterritorialised sites)”를 일컫는다(Pastor *et al.* 2020, 586). 즉, 인클레이브는 주로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만,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혹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같은 지역 경제와의 연계 효과(linkage effects)가 낮은 경제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클레이브 경제는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된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어왔다(Arias *et al.* 2014, 76). 특히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인 인클레이브 관광(enclave tourism)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 기간 동안 관광 관련 부대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리조트 내부에 머물면서 인클레이브 관광 복합시설로서의 리조트를 즐기는 관광의 형태를 일컫는다(ProPoor Tourism 2004, 3; Carlisle and Jones 2012, 9, 재인용).

Carlisle와 Jones는 이와 같은 인클레이브 관광의 경우, 해안 리조트 경관 생산 과정에서 지역 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Carlisle and Jones 2012, 9).

이처럼 인클레이브 관광이 지역 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양산하는 이유는 인클레이브 경제 구조가 주로 자원개발주의적(extractivist)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자원개발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고전적) 자원개발주의는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형태의 하나로 (a) 그 자원 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지며 (...), (b) 그 자원 개발은 주로 수출을 위해 이뤄지고, (C)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의 국내 경제에 대한 연계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Villalba-Eguiluz and Etxano 2017, 4; 서지현 2018, 39에서 재인용).

Carlisle와 Jones (2012)가 지적하고 있듯이, 리조트 호텔과 국제회의 센터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건축물의 경우 주로 인클레이브적 구조를 지니는데, 이러한 인클레이브는 동시에 자본 축적 양식에서 자원개발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인클레이브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자원 이용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인클레이브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사전에 차단하며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심화시킨다(Carlisle and Jones 2012, 10). Zukin(1991)은 인클레이브 관광을 “꿈의 경관 (dreamscapes)”이라고 불렀는데, 파라다이스와 같은 꿈의 경관 이미지가 그 경관에 내재된 권력 관계나 복잡한 현실 관계를 숨기면서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때문이다(Zukin 1991, 219; Carlisle and Jones 2012, 10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Brenner and Aguilar (2002) 역시 리조트 관광이 자본 축적 방식으로 관광 경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광객들이 리조트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지역 경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련된 투자 유입과 지역 자원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Brenner and Aguilar 2002, 503-504).

이처럼 인클레이브 관광의 운영 형태와 그 영향을 들추어내는 것은 올인클루시브와 같은 관광 산업이 지역 사회에서 재생산해내는 빈곤이나 불평등한 자원 이용 등과 같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이론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서의 인클레이브 관광의 등장 배경과 지역 사회에의 영향을 통해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지역 발전에 대한 함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III. 멕시코의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 사례

#### 1. 관광 산업 성장의 배경

멕시코에서 관광 산업이 지니는 중요성은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멕시코 관광 산업은 멕시코 GDP의 8% 내외를 지속적으로 차지해오고 있으며,<sup>5)</sup> 외화의 수입원에 있어서도 관광 산업은 단일 산업영역 기준으로 석유, 송금 수입의 뒤를 이어 세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Wilson 2008).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국가 역시 관광 산업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관광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이용 허가 없이는 관광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 관광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국가개발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져 왔다.

멕시코에서 관광 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멕시코 혁명을 완성한 혁명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과 국가체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 가운데 멕시코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관광 산업은 기반시설건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접촉이 행해지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고려됐다(Mateos 2006, 34-35). 이에 따라, 1928년 기업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형태의 관광진흥합동위원회(CMPT: Comisión Mixta Pro-Turismo)가 설립되어 정부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Mateos 2006, 38).

전후의 경제 호황이 끝나고 농산품을 비롯한 1차 상품의 수출이 감소해가고 있던 멕시코 국내 경제에서 관광은 멕시코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멕시코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29년 19,200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1969년 조사에서는 2,064,800

5) COVID-19의 여파로 2020년의 경우, 전체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감소하였다(SECTUR 2021).

명으로 100배 이상 크게 성장했다(Jimenez 1992, 278-279, Hernaux-Nicolas 1999, 126에서 재인용).

정부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개발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은 미겔 알레만 정부(Miguel Alemán, 1946-1952년 집권)<sup>6)</sup>이 근대화 발전 전략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알레만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관개,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의 공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관광 산업을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두었다(스키드모어 외 2014, 119-120). 1960년대 관광 산업의 목적은 국제 관광의 활성화였고, 이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리조트의 건설을 지원했다. 근대화 발전을 위한 관광 정책을 시행한 알레만 정부는 1958년 ‘국가관광협의회(El Consejo Nacional de Turismo)’를 설립하여 외국에서 관광지 멕시코를 홍보하는 일을 맡기는 한편, 관광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경제활동 분야들인 통신, 교통, 숙박시설, 관광시설, 관광종사자 교육과 같은 활동들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Mateos 2006, 39). 도로와 공항의 건설, 공항의 보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은 기금<sup>7)</sup>을 통해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는 기존의 관광진흥합동위원회(CMPT)를 관광청(Secretaria del Turismo)<sup>8)</sup>으로 승격시켜 정부 주도의 관광정책들을 이끌어어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관광 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한 배경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가 멕시코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멕시코인의 관광·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고, 산업화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국내 화이트칼라 노동자 임금상승과 중산층의 점진적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관광 수요가 증가했다. 국제 수요의 경우, 역시나

6) 멕시코 혁명 이후 최초의 민간 대통령이다. 미겔 알레만 정권하에서 멕시코 제조업은 급격히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1948-1951년 사이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7) 해당 기금으로는 관광진흥및인프라기금(INFRATUR: el Fondo de Promoción e Infraestructura Turística)과 국가관광진흥기금(FONATUR: el Fondo Nacional de Fomento al Turismo)이 있다.

8) 관광진흥합동위원회(CMPT)는 후에 1935년 국가관광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Turism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0년대에 관광청(SECTUR)이 되었다.

관광문화의 확대에 의한 전체적인 관광객의 증가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경기 호황으로 더 많은 미국인이 국제관광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아돌포 루이스 코르티네스 정권(Adolfo Ruiz Cortines, 1952-58년 집권)하에서 이루어진 폐쇄화 평가절하 정책이 멕시코를 값싼 여행지로서 외국인 관광객(주로 미국)들의 유입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스키드모어 외 2014, 121).

멕시코 근대화 정책 아래의 관광지 개발이 국내외 수요의 증가라는 요인과 맞물려 등장한 대표적 관광지로서 아카폴코가 있다. 태평양에 접해있는 아카폴코는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19세기 초부터 상류층의 휴양지의 하나였으며, 1930년대에 본격적인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아카폴코는 국내외 관광 수요의 반영과 함께 자본을 축적한 멕시코 엘리트들의 투자를 통해 관광 지역을 형성해가면서 1960년대 중반에는 멕시코의 유일한 근대적 리조트로 평가받을 정도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Hiernaux-Nicolas 1999, 126-127). 그러나 동시에 체계적인 도시화 계획 및 관광지로서의 관리가 부재한 채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늘어나는 관광 수요와 관광 산업에 대한 국가적 기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은 인프라 부족 현상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할 만한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뜻했다. 그러나 당시 멕시코에는 아카폴코를 대체할만한 다른 유사한 형태의 관광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 새로운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지역의 다른 형태의 관광지 건설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칸쿤은 관광지 건설 후보지 중 카리브해 지역의 35개 후보 지역 중에 채택된 곳으로, 멕시코 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의 투자로 일명 ‘칸쿤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면서 지금의 관광도시 멕시코 칸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Hiernaux-Nicolas 1999,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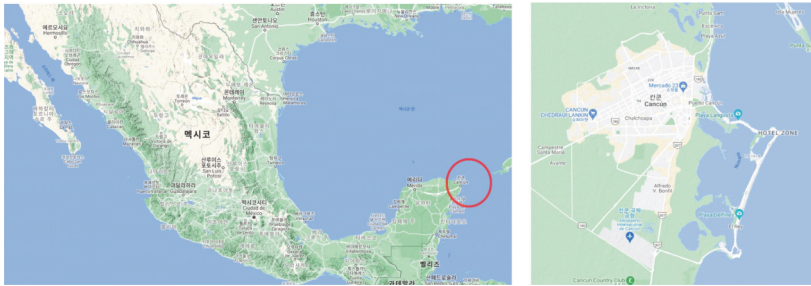
칸쿤의 초기 개발모델은 전형적인 포디즘적 생산<sup>9)</sup>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9) 관광에서의 포디즘적 생산이란 대규모 호텔, 항공, 여행사들을 통해 행해지는 관광을 의미하며, 규모의 경제로부터 편익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가레스 쇼·앨런 모건 윌리엄스 2013, 63).

이에 따라 태양(sun), 해변의 모래사장(sand), 바다(sea)에 기반한 전통적인 3-S 형태의 관광 산업 모델로 개발되게 되었다(ibid).

## 2. 지역 발전에의 함의

칸쿤은 멕시코 남부 유카탄반도의 북동쪽의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다. 칸쿤의 개발은 아카폴코의 뒤를 이를 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나, 입지의 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으로서의 흡인 요인-카리브해-만이 고려된 것은 아니다.



자료: 구글지도활용, 멕시코통계청 INEGI(2022년 3월 13일 검색)  
<https://www.inegi.org.mx/temas/topografia/>

〈그림 1〉 멕시코 지도 및 칸쿤 지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멕시코 근대화 발전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결과를 가져왔다. 멕시코 산업화의 성과는 일부 중부 수도권 및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sup>10)</sup> 칸쿤이 위치한 유카탄반도는 현재까지도 개발낙후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칸쿤 개발 당시 수출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메리다 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Hiernaux-Nicholas 1999, 129). 따라서 칸

10)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의 멕시코의 산업화의 입지는 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후 마킬라도라 산업은 북부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위치하게 됨에 따라 남부 지역은 산업화의 혜택이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김희순 2008; 2010)

쿤이라는 새로운 개발 대상의 지정은 카리브해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가졌다는 이유와 함께 유카탄반도의 저발전으로 인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반영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불안정한 중앙아메리카의 정치 상황에서도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위치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부 주도하에서 일명 칸쿤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시행되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공항과 도로의 건설, 그리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의 건설이 필요했다. 칸쿤에는 이미 1942년 고무 산업 시대 수출 용도의 공항이 건설되어 있었으나, 이후 산업이 사양길을 걷게 되면서 방치되어 있었다.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해당 공항을 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대규모 관광객 수용을 위한 새로운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심 외부인 현재의 위치에 공항을 건설, 1975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도로의 건설은 오히려 매우 단순하게 행해졌는데, 이는 칸쿤이 철저히 ‘카리브해’라는 관광자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긴 해안선을 따라 리조트들을 건설하고, 해안가의 반대편인 호수(lagoon)를 따라 하나의 도로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칸쿤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칸쿤은 처음부터 외국인 관광객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지로 계획됐으며, 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한 관광객들이 바로 리조트로 이동해서 휴가 기간의 전부를 리조트에서 보내고, 다시 직접 공항으로 이동해서 자신들의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됐다. 따라서 리조트 내에서 휴식, 놀이, 음식 등을 다 누릴 수 있는 형태인 대규모 거대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게 되었으며, 관광객들은 관광 지역 외의 칸쿤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칸쿤을 명확한 관광 지역과 도시지역으로의 구분하게 되었다(ibid.).

칸쿤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는 멕시코 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이 담당하였으나, 점차 민간 영역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민간부문의 관광 산업 참여는 호텔 등의 관광 서비스의 공급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는 공항을 비롯한 인프라에 대한 민영화로도 이어졌다. 공급의 증가는 관광 경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칸쿤은 과거 리조트만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관광의 형태에서 리조트 밖의 도심의 쇼핑몰이나 레스토랑의 방문, 주변 유적지로의 방문지 확장, 리조트 밖의 레저활동 참여 등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칸쿤이 가진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의 성격을 잃어버렸다고는 할 수 없다.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관광유형<sup>11)</sup>으로, 칸쿤은 1970년대 처음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여전히 매우 인기 높은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의 관광지이다(2019년 7월 기준, 객실점유율 82.3%) (SEDETUR QUINTANA ROO).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칸쿤의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은 인클레이브 관광이 가지는 한계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이 칸쿤에서의 지역의 변화에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를 남겼는가는 다음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은 관광 산업 이윤이 지역경제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칸쿤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의 목적인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도약했다. 멕시코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관광 리조트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카탄반도는 멕시코 내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 발전이 지역에 골고루 연계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CONEVAL 2000-2005).

둘째, 지역 내부 불평등 심화의 측면으로서 노동을 살펴볼 수 있다. 칸쿤 프로젝트는 지역 고용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인구들의 이주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지역 사회 인구 구성의 다변화를 유발하였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멕시코 남부 지역 인구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유카탄반도의 마야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의복, 언어와 같은 고유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형태의 자체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의 직업교육을 한 후, 칸쿤으로 이주하여 관광 분야에 진출하

11) Orgaz-Agüera, López-Guzmán, Domínguez Estrada, Alector Ribeiro 에 따르면, 올인클루시브 관광의 경우 관광객들이 여행 이전에 지출정도를 알고 있으며, 여행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Orgaz-Agüera et al, 2018).

였다(Hiernaux-Nicolas 1999, 136). 그러나 이렇게 창출된 고용은 대부분 청소, 요리, 서빙 등의 저임금, 저기술 직종에 집중되어있었다(가레스 쇼·앨런 모건 윌리엄스 2008, 219).

셋째,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중심 모델은 개발 초기부터 관광 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고급 리조트와 호텔이 차지하고 있는 관광 지역과 상업지구의 역할과 관광지 노동자들의 거주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지역의 구분이다. 칸쿤 인구의 80%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택 서비스 및 높은 생활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중심의 개발이 이분화된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의 사회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ibid.).

마지막으로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의 높은 관광객 수요와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오는 생태계 취약성의 증가이다. 칸쿤이 위치한 유카탄반도 일대는 석회암지대로 지면에 흐르는 강이 없는 곳이다. 따라서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전물의 공급이 해변으로 유입되지 않아 자연적 해변 침식의 우려가 늘 존재하는 지역이다(Merino *et al.* 1990; Escudero-Castillo *et al.* 2017에서 재인용). 해변 침식은 파도와 허리케인 등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카리브지역에서 빈번하게 마주하게 되는 허리케인<sup>12)</sup>은 해변 침식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리조트를 비롯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광 조형물들이 허리케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확대하고 있으며(Silva Casarin *et al.* 2012), 일차적인 연관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계속되는 기후 위기 속에 허리케인이 더욱 강해지고,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2) 대표적으로 1988년 9월 허리케인 길버트(Gilbert)는 130,000m<sup>3</sup>의 모래를 리조트에서 바다로 쓸려 보냈다. 2005년 7월 에밀리(Emily), 2005년 10월 윌마(Wilma), 2007년 8월 딘(Dean) 등의 허리케인들도 외부 지형에 해를 가하거나 관광지 건축물들을 파괴했다.

## IV.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 사례

### 1. 관광 산업 성장 배경

도미니카 공화국은 1865년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도 20세기 내내 반복적인 미국의 개입과 독재에 시달렸다. 1970년대까지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 성장의 중심은 토바코,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등과 같은 농산품 생산과 수출<sup>13)</sup>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사이 사탕수수 생산과 커피 가격 폭락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Duffy *et al.* 2015, 3). 주변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플레이션, 폐소화 평가 절하, 실업률 급증, 소득 수준이 급락하면서 빈곤 인구가 급증하였다(ibid.).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0년대 이후 관광 산업은 경제 세계화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친 시장정책 도입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 발전을 위한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Sauter 2014, 51).

본격적으로 관광 산업이 성장하기 이전인 라파엘 트루히요(Rafael Trujillo) 독재 정권 시기(1930-1961년 집권)에는 주로 수도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 발전이 집중되었다(Sauter 2014, 61).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카리브 해 연안의 자연 자원인 3-S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을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사이였다(Sauter 2014, 61). 그 배경에는 쿠바 혁명 이후 미국이 쿠바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면서 유네스코(UNESCO), 세계은행, 미주 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압박이 있었다(Cabezas 2004, 988).<sup>14)</sup> 이러한 상황

13) 1960년대와 1980년대 초 사이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사탕수수 등 농산품 수출을 통해 얻은 재정 소득을 기반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Sauter 2014, 52).

14) 20세기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 군사 점령 등의 형태로 미국의 헤게모니적 통제 하에 있었으나,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공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Cabezas 2004, 988). 쿠바의 경우 19세기부터 3-S 기반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켰으나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을 거둔 후 관광 산업의 성장세는 주춤해졌다. 이후 1970-1989년 사이 관광 회복기를 거쳐,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에 따른 경제 위

에서, 1969년 관광법(Ley Orgánica de Turismo)이 제정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항공 교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1960-70년대는 관광의 세계화와 대중 관광(Mass Tourism)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트루히요 독재 정권 시기 민간 호텔 투자자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웃한 쿠바의 바티스타(Batista) 독재 정권시기 때와 같은 엘리트와 외국인만을 위한 폐쇄적인 형태의 관광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관광 산업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Fawcett 2016, 9).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관광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경제적 세계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sup>15)</sup> 특히 198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경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적 세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0년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관광 투자자에 대한 해안 지역 토지의 장기 임대(최대 50년)조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법 제정, 노동 및 환경 규제 유연화 등의 친 시장적인 법제 개혁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광 산업은 송금, 자유수출 지역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요 외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Oviedo-García *et al.* 2019, 1000; Fawcett 2016, 9; González-Pérez 2016, 61; Sauter 2014, 54-55). 도미니카 공화국은 1992년에서 2013년 사이 평균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5.7% 성장했으며, 2014-2015년 사이 7.3% 성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제조업과 건축업의 성장과 함께, 관광 산업의 성장이 자리하고 있었다(Oviedo-García *et al.* 2019, 1000).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요 관광 지역은 수도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와

---

기에 마주하여 관광 산업의 재부흥기를 맞이했다(González-Pérez 2016, 60). 이 시기 쿠바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관광지는 바라데로(Varadero)이며, 이곳도 여느 카리브해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초국적 호텔 체인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관광 리조트 중심의 도시로 개발되었다(González-Pérez 2016, 60-63).

15) 1970년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은 관광객은 63,000명에 불과했는데, 1999년 260만 명으로 급증했다(Cabezas 2004, 988).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북부에 위치한 푸에르토 플라타(Puerto Plata) 지역, 동부의 바바로-푼타 카나(Bávaro-Punta Cana) 지역, 그리고 최근에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북동부의 사마나(Samaná) 반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sup>16)</sup>(지도 2). 특히 동부 연안에 위치한 “바바로-푼타 카나 지역”은 1980년대부터 관광특구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의 약 2/3 정도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ffi *et al.* 2020, 5; Fawcett 2016, 9; Sauter 2014, 97).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부들이 사는 작은 마을로 주민들은 주로 소규모의 어업에 종사하거나, 코코넛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거나 생계를 위한 농업에 종사했다(González-Pérez 2016, 64; Sauter 2014, 99). 1971년



Dominican Republic Beach Map- ©2010

출처: <http://www.destination360.com/caribbean/dominican-republic/map> (검색일: 2022.2.25.)

〈그림 2〉 도미니카 공화국 지도

16) 푸에르토 플라타(Puerto Plata)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1970년대 이 지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광 투자가 이어졌으며, 1984년부터 푼타 카나(Punta Cana) 국제공항 운영이 시작되면서 동부 해안 지역 관광 개발이 본격화되었다(Mejía Urbáez, 2013:22).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업가가 미국 투자자와 함께 합작하여 폰타 카나 그룹(Punta Cana Group)을 세웠으며, 곧이어 지역 리조트인 폰타 카나 클럽을 개장했다(González-Pérez 2016, 64). 1982년에는 폰타 카나 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 지역이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호텔의 관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González-Pérez 2016, 64; Sauter 2014, 100).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급격하게 발전한 3-S 기반 관광 산업의 주된 특징은 해외 관광 자본의 집중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한 “올인클루시브” 관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1970-2000년 사이 관광객 수가 연간 12%씩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Fawcett 2016, 9).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관광 투자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 하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있었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하수도, 도로, 전력 시설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Duffy *et al.* 2015, 3).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투자 유인책 등을 통해 개발권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외국 자본의 관광 개발 투자 활성화를 진작하는데 일조했으나 점차 해안지역에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ibid.). 1990년대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에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호텔 기업은 바바로-폰타 카나와 푸에르토 플라타 지역이 위치한 동부와 북부 해안지역에 투자를 집중(약 62%)하고 있으며, 이 중 84%는 올인클루시브 모델로 운영 중이다(Mejía Urbáez 2013, 24). 아래에서는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관광 산업이 관광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 2. 지역 발전에의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해 연안 관광 지역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호텔 체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

들은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관광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이윤이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초국적 자본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된다(Duffy *et al.* 2015, 2; Pantojas 2006, 91).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관광 지역인 푼타 카나의 경우에도 도미니카 공화국 전체 호텔 객실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있을 만큼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높아 이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González-Pérez 2016, 62).

인클레이브적 성격을 띠는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 온 불평등을 어떻게 더욱 심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의 측면이다. 지난 30년 이상 동안 친시장적인 경제 성장 정책에 따른 자유 무역 지대, 관광 산업, 송금 등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8년 인구의 47%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실업률이 높다(Caraballo-Cueto 2016, 181). 고용 없는 성장의 배경에는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과 같이 20세기 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 자본 투자에 의존적인 인클레이브 경제 발전 모델이 한 몫했다(Caraballo-Cueto 2016, 182). 관광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지만 올인클루시브 모델의 경우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관광 산업에서 창출하는 고용의 형태는 주로 건설, 서빙, 요리, 청소 등의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계절적 노동, 비정규직 노동인 경우가 많다(Ripton 2013, 36-43; Pantojas 2006, 91; Cabezas 2004, 990-992). 특히 가장 열악한 사회 계층은 이웃 국가인 아이티 출신 노동자들로, 주로 관광 관련 인프라 건설, 설거지, 서빙, 정원사 등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며, 스페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Ripton 2013, 47-48). 또한,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며 인종적인 차별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ibid.*).

둘째,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은 여성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

키기도 한다. 관광 산업이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많은 구직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섹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Cabezas 2004, 997). 이러한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여성은 주로 젊은 여성 가장인 경우가 많고, 남성은 신체 건장한 젊은 흑인 남성이다(Cabezas 2004, 995). 이들은 HIV/AIDS와 같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건강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Ripton 2013, 45).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인종 차별적 통제가 섹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 기제로 심화되어 작동하고 있기도 한데,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들이 관광 지역에 홀로 다니게 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의 통제를 받기도 한다(Cabezas 2004, 1003-1004).

셋째,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단순히 관광을 위해서만 기능하는 도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González-Pérez 2016, 60). 도미니카 공화국 인구 중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그 중 35% 이상이 수도인 산토도밍고에 거주하는데, 여러 지역에 관광 개발 특구가 지정되면서 지방 분권화가 이뤄졌다(Mejía Urbáez 2013, 24).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한 관광 지역 개발은 과도시화 현상에 따른 도시의 사회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새롭게 형성된 도시는 모래사장과 사유화된 해안, 올인클루시브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관광 지역’과 배후의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으로 이분화된 도시(dual city)를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나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된 도시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González-Pérez 2016, 61-62).

마지막으로 올인클루시브 관광 모델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 역시 기존의 사회-자연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호텔이나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습지 파괴, 토양 유실, 맹그로브, 해초 등과 같은 해안 생태계를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Phillip 2012, 14). 또한, 관광 요트, 유람선, 크루즈 선의 운행은 수질 오염이나 산호초 등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Goffi *et al.* 2020, 9; Phillip 2012, 14). 특히 해안가를 중

심으로 건설되는 호텔이나 리조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역 관광업과 관련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된다(Charles 2013, 149). 또한 골프장의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발생하는데, 2004년 24개 연안 골프장에서 사용된 제초제의 양은 한 달 평균 220,800kg으로 연간 약 2,649,600kg으로 증가했다(Mejía Urbáez 2013, 32).

## V. 결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카리브해 연안 지역 관광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인 올인클루시브 관광이 왜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클레이브 관광’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올인클루시브 관광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인 멕시코의 카리브해 연안 지역(칸쿤)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해 연안 주요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인클레이브 관광은 관광 관련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 복합체 내에서 관광객이 관광 기간을 보내며, 모든 관광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하는 관광 형태이다. 이 때문에 인클레이브 경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자본 축적을 위한 “탈영토화된 장소”로서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탈영토화된 장소는 주로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적 자본이 투자하고, 거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자원을 수출하는 자본 축적의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실제 지역 사회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탈영토화된 장소에 기반한 자본 축적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존재하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Zukin의 용어인 “꿈의 경관”과 같이 탈영토화된 장소인 올인클루시브 관광지는 3-S에 기반한 파라다이스의 이미지로 지속해서 국제적인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를 위해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유입되는 한편, 이를 통해 각국은 거시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하지만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해 연안 관광 지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인클레이브 관광의 특징을 가진 올인클루시브

관광은 지역 내 존재해온 노동, 젠더, 도시 구조, 환경 및 자원 이용과 관리와 같은 생태·사회적인 측면에서 존재해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70회 UN 총회는 2017년을 “국제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도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지현, 2020a). 최근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 관광업계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환경 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해 형성된 국제 녹색 인증제(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이다(Charles 2013, 154). 특히 녹색 지구 인증제(Green Globe Certification, 이하 GGC)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증제로 카리브해 호텔의 상당수가 GGC를 인증받았다(Charles 2013, 155).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과 함께, 각국 정부에서도 관광업과 관련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Phillip 2012, 16).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자연환경을 보호, 관리하여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들의 최근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 폐기물 및 수자원 관리, 청정에너지 생산 등의 이슈는 지속 가능한 관광업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harles 2013, 153). 이러한 업계의 노력과 함께,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체 기반 관광 역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 산업의 형태로 주목할 만하다.

## 참고 문헌

- 가레스 쇼·앨런 모건 윌리엄스(2008), 『관광지리학』,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이영희, 김양자 역) 한울.
- \_\_\_\_\_(2013), 『관광과 관광공간』, Tourism and tourism spaces.(김남조, 유광

- 민, 민웅기 역) 백산.
- 곽재성(2000), 「관광 산업의 진흥을 통해 본 쿠바의 개방 정책」,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1, pp. 1-20.
- 김정원(2019), 「페루와 볼리비아의 관광 산업과 운영개선 방안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 29, No. 2, pp. 89-100.
- 김희순(2008), 「멕시코 마길라도라산업의 특성과 분포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11, No. 2, pp. 241-271.
- (2010), 「수입대체산업화 시기 멕시코의 산업입지 배경과 제조업 관련업체의 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 1, No. 2, pp. 147-165.
- (2011),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의 연구: 멕시코 유카탄을 사례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2, No. 1, pp. 93-121.
- 서지현(2018),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와 신자원개발주의: 페루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Vol. 37, No. 1, pp. 37-62.
- 손수진(2016), 「중남미 원주민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관광학적 접근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방안」, Vol. 28, No. 9, pp. 123-139.
- 장동석·이승훈(2017), 「관광 목적지 선택 속성이 이미지,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인 쿠바 잠재 관광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Vol. 40, No. 3, pp. 47-64.
- 주종택(2014), 「쿠바의 관광 산업과 히네테리스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접합」,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7, No. 4, pp. 57-89.
- (2020), 「쿠바의 관광 산업과 종족 관계의 변화」, 관광학연구, Vol. 44, No. 8, pp. 9-32.
- (2021), 「쿠바의 관광 산업과 감정노동, 그리고 친밀성의 경계」,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30, No. 4, pp. 63-95.
- Arias, M. et al.(2014), “Large mining enterprise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Chile: between the enclave and cluster”,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14, pp. 73-95.
- Babinger, Frank(2011), “El turismo ante el reto de peligros naturales recurrentes: una visión desde Cancún”, *Investigaciones Geográficas, Boletín del Instituto de Geografía*, Vol. 78, pp. 75-88.
- Brenner, L. and Aguilar, A. G.(2002), “Luxury Tourism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Mexico”,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 54, No. 4, pp. 500-520.

- Cabezas, A.(2004), “Between Love and Money: Sex, Tourism, and Citizenship in Cuba and the Dominican Republic”,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29, No. 4, pp. 987-1015.
- Caraballo-Cueto, J.(2016), “Free trade zones, liberalization, remittances, and tourism for what?”,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Issues*, Vol. 15, No. 2, pp. 181-200.
- Carlisle, S. and Jones, E.(2012), “The beach enclave: A landscape of power”,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Vol. 1, pp. 9-26.
- Charles, D.(2013), “Sustainable tourism in the Caribbean: the role of the accommodations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conomics*, Vol. 7, No. 2, pp. 148-161.
- Duffy, L. *et al.*(2015), “Tourism Development in the Dominican Republic: An Examination of the Economic Impact to Coastal Households”,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16, No. 1, pp. 1-15.
- Fawcett, E.(2016), Retos del crecimiento sostenible a través del turismo en la República Dominicana, Serie Estudios y Reflexiones Desarrollo Sostenible. GFDD-Funglode.
- Goffi, G. *et al.*(2020), “Sun, Sand, and ... Sustaina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a Tourists’ Perspective. The Case of Punta Cana”, *Sustainability*, Vol. 12, 4743, pp. 1-14.
- González Pérez, J. M.(2013), “Problemáticas urbanas en los enclaves turísticos: turismo como estrategia para el ordenamiento urbano y territorial”, *Revista Bitácora Urbano Territorial*, Vol. 22, No. 1, pp. 138-140.
- González-Pérez, J. M. *et al.*(2016), “Urban growth and dual tourist city in the Caribbean. Urbanization in the hinterlands of the tourist destinations of Varadero (Cuba) and Bávaro-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Habitat International*, Vol. 58, pp. 59-74.
- Lempert, David(2016), “A Sustainable (Culture Protecting) Tourism Indicator for Cultural and Environmental Heritage Tourism Initiatives”, *Asi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 No. 2, pp. 103-146.
- López-Guzmán, T. *et al.*(2016), “Turismo All-Inclusive en República Dominicana. Un análisis desde la perspectiva de la demanda turística”, *Revista de Economía*, No. 17, pp. 125-142.

- Mateos, Jimena(2006), “Presentación del turismo en México: la ruta institucional (1921-2006)”, Gabriela Olivo de Alba(ed.), *Cuaderno14*,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Coordinación Nacional de Patrimonio Cultural y Turismo, <https://ilamdocs.org/cat/639/>.
- Medina-Muños, D. R. *et al.*(2016), “The impacts of Tourism on Poverty Alleviation: An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 24, No. 2, pp. 270-298.
- Mejía Urbáez, Y.(2013), *Estudio Inicial en el Sector Hotelero para Rep. Dominicana, Análisis Mediante Simulación para la Comparación y Cuantificación de Residuos*. Universitat Politècnica de Catalunya. Instituto de Sostenibilidad.
- Orgaz-Agüera, F; López-Guzmán, T; Domínguez E, José F. and, Alecor R, M. (2018),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ourists in all-inclusive system in Cancun, Mexico, and Puerto Plata, Dominican Republic”, *PODIUM Sport, Leisure and Tourism Review*, Vol.7, No. 2, pp. 178-192.
- Oviedo-García, M. *et al.*(2019), “Does Sun-and-Sea All-Inclusive Tourism Contribute to Poverty Alleviation and/or Income Inequality Reduction? The Case of the Dominican Republic”,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58, No. 6, pp. 995-1013.
- Pantojas, E.(2006), “De la plantación al resort: El Caribe en la Era de la Globalización”,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Vol. 15, pp. 82-99.
- Pastor, G. *et al.*(2020), “Landscape enclaves: wine capitalism and luxury tourism in Mendoza, Argentina”,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 27, No. 1, pp. 580-593.
- Ripton, J.(2013), “Developing Paradise: Tourism, the Local Community, and Nature in Las Terrenas, Dominican Republic”,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Global Studies*, Vol. 5, No. 1, pp. 34-60.
- Sauter, G.(2014), *Resort Urbanism: Understanding the Power, Planning and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Bávaro-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SECTUR(2018), *Portafolio de inversión para el impulso al desarrollo turístico del Estado de Quintana Roo*, 2019.
- \_\_\_\_\_(2019). *Resultados del Monitoreo Hotelero 2019 (70 centros turísticos)*

- \_\_\_\_\_(2021). El Compendio Estadístico 2020
- Torres, Rebecca(2002), “Cancun’s tourism development from a Fordist spectrum of analysis”, *Tourist Studies*, Vol. 2, No. 1, pp. 87-115.
- Wilson, Tamar Diana(2008),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ourism in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5, No. 3, pp. 37-52.
- 도미니카 공화국 지도, retrieved from <http://www.destination360.com/caribbean/dominican-republic/map> (검색일: 2022. 2. 25).
- 멕시코 및 칸쿤 지도, retrieved from <https://www.inegi.org.mx/temas/topografia/> (검색일: 2022. 3. 13).
- 서지현(2020a), ‘카리브 해 섬나라들의 관광과 지속 가능한 발전’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_she&logNo=222154020704&categoryNo=19&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_she&logNo=222154020704&categoryNo=19&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검색일: 2022. 3. 18).
- \_\_\_\_\_(2020b), ‘코스타리카, 바나나 공화국에서 녹색공화국으로’,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korea\\_she/222181823496](https://blog.naver.com/korea_she/222181823496) (검색일: 2022. 3. 20).
- Billy, D.(2017), ‘Sustainable Tourism in the Caribbeans’, retrieved from <https://www.wordsinthebucket.com/sustainable-tourism-in-the-caribbean> (accessed November 18, 2020).
- SEDETUR QUINTANAROO, <http://sedeturqroo.gob.mx/ARCHIVOS/indicadores/Indicador-Tur-Jul-2019.pdf> (accessed February 25, 2022).
- CONEVAL, <https://www.coneval.org.mx/Medicion/EDP/MP/Paginas/Mapas-de-desigualdad-2000-2005.aspx> (accessed March 19, 2022).

## 서지현

부경대학교  
jihyunseo@pknu.ac.kr

## 오인혜

전북대학교  
inhye\_oh@jbnu.ac.kr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20일  
심사완료일: 2022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2일

# Study on Enclave Tourism in the Caribbean Coastal Regions

**Seo, Ji-hy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h, In-hy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eo, Ji-hyun, Oh, In-hye(2022), "Study on Enclave Tourism in the Caribbean Coastal Region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3(1), 109-135.

**Abstract** Tourist industry is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aribbean coastal regions. The industry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both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natural resources, including sun, sand and sea (i.e. 3-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acts of 3-S based all-inclusive tourism on local development, by adopting the concept of 'enclave tourism'. In particular, it conducts a case study of representative cases of 3-S based all-inclusive tourism in the Caribbean coastal regions, such as Cancun (Mexico) and tourist regions in the Dominican Republic. The all-inclusive tourism means that all tourists are to stay within the resort complex which includes all tourist facilities and services. This all-inclusive tourism often takes the form of enclave, which is a mode of capitalist accumulation based on 'deterritorialised sites'. The deterritorialised sites is to be invested by transnational capital for export industry based on natural resources and thus to be a space for capitalist accumulation while being detached from local development dynamics. By examining case studies, this study argues that this enclave tourism could produce unequal power relationship and even strengthen inherent inequality in socio-ecological terms. In this regard, it makes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sustainable tourism supported by tourist industry itself as well as community-based tourism.

**Key words** all-inclusive tourism, enclave tourism, Caribbean Coastal Regions, Cancun, Bavaro-Punta Cana